"전남주요도로망내년에도쪽쪽뻗는다"…사업비613억증가

도로 분야 국비 4827억 반영, 차질없는 사업추진 가능 "반영 못한 사업, 향후 국회 심사 과정서 반영되도록 최선"

전남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을 위한 연륙·연도교를 비롯한 주요 도로망 공사 가 순항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정부의 긴축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요 도로 건설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돼 내년 에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 지역 도로 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613억원 (14.5%) 늘어난 4827억원이 반영됐다.

당초 3318억원이 편성됐지만 전남도가 사업

의 당위성 등을 기획재정부에 지속 건의한 결 과 기존 부처 안보다 1509억원(45.5%)이 증액 되는 성과를 거뒀다.

먼저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1단계(광주~강 진) 공사는 1028억원이 반영돼 2026년 완공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됐다.

또 2단계(강진~완도) 구간도 지난달 23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1단계 준공 이전에 연이어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 련됐다.

연륙·연도교와 주요 간선도로망은 12건,

3749억원이 확보됐다.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국도 77호선 단절 구 간을 모두 연결하기 위한 '신안 압해~해남 화 원 연결도로(1054억원)', '여수 화태~백야 연 결도로(535억원)', '여수~남해 해저터널(400억 원) 건설'에도 많은 예산이 반영돼 적기 완공 에 탄력을 받게 됐다.

도로망과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향후 서남해 안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여기에 광주 하남에서 장성 삼계를 잇는 광 역도로 사업비 50억원도 반영돼 광주와 전남 을 잇는 교통망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정부 긴축 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도 의미 있는 성과 를 거뒀지만 아직 반영돼야 할 사업이 있다"며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향후 국회 심 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현대삼호중공업 '2023년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금상

'DENOVATION' 등 출전 2개 팀 모두 수상 R&D·현장개선 분야서 혁신사례 인정받아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 사 신현대 사장)이 '산업계 전국체전'이라 불 리는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출전팀이 모두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 일까지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제 49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출전한 2개 팀이 모두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3일 밝혔

전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순천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품질혁신으로 대한민국 미래 100년 선도'를 주제로 진행됐다. 앞서 시ㆍ 도별 지역 예선을 통과한 전국 273개 팀 2500 여 명의 분임원이 참가했다.

이 대회에서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달 31 일 선체설계부 'DENOVATION' 품질분임조가 R&D 분야에서 '화물창 구조 최적화 VLCC 개 발'을 주제로 발표해 금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자동화혁신센터의 '가온누 리' 품질분임조가 현장개선 분야에서 'LNG 멤 브레인 시트 용접방법 개선으로 작업시간 단 축'을 주제로 발표해 역시 금상을 받았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항상 최상의 품 질을 추구하며 현장에서의 실속 있는 개선 사 례 발굴에 열과 성을 다한 임직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품질 개발과 현장 개선을 통해 전국에서 인정받는 제조 혁신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겠다"고 말했

영암=조대호기자

전남도, 청년정책 싱크탱크 제6기 '청년의 목소리' 출범

전남도는 최근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 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6기 '전라남도 청년의 목소리'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년의 목소리'는 직장인, 자영업자, 청년단 체, 농어업인,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 청년 51 명으로 구성됐다. 청년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 제6기 대표로 선출된 문춘 원 씨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 해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 남형 청년친화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소감을

앞으로 제6기 전라남도 '청년의 목소리'는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권역별 간담회, 워크숍 개최 및 전남 청년정책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종우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정 책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난임시술비 지원요건 중 소득기준 폐지를" 광주시 "기준 항목 비현실 공감…검토 중"

"상당수 타 지자체 폐지 폐지 검토"

난임시술비 지원요건 중 하나인 소득기 준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다. '아이낳기 좋은 광주'를 기치로 각종 출 산 장려시책을 시행중인 광주시도 소득기 준 항목이 비현실이라는데 공감, 폐지를 검 토하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난임시술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 하여야 한다.

가구원수 2인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기 준중위소득 180%는 586만8000원(2022년 기준)에 해당한다. 가구 소득이 이 금액을 넘어서면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최근 이 같은 기준 자체가 비현실적이라 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광주시에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올 해를 살아가는 맞벌이부부는 사실상 혜택 을 받기 어렵다. 출산율 저하 해소를 위해 발빠르게 난임지원 소득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맞벌이부부인 점을 고려하면 지 금의 소득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

A씨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광주시는 관 련 정책이 한참뒤로 밀려 있다. 다른 지자 체 만큼의 발걸음이라도 맞춰 나아가야 한 다"고 지적했다.

민원인 B씨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난임 으로 인해 시술을 받아야 한다. 부담스러운 비용때문에 시술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이

다. 주변 지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토로했

또 "몇몇 지자체는 지난 7월부터 난임지 원 기준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했다고 한다. 각 지차체별로 예산이 달라 소득기준 폐지 를 시행하는 시점도 다른 것으로 안다. 광 주시도 먼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하루속히 소득기준을 폐지해달라"고 말했다.

광주시도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추가 예산 확보가 필 요한 사업인 만큼 폐지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난임시술비 지원 범위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비 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이다. 신선배아 최 대 9회·동결 최대 7회·인공수정 최대 5회 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지원 범위와 적용 대상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국가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며 "전국 상당수의 지자체가 지원 기준 폐 지 또는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데 공 감하고 있다. 이를 폐지했을 때 필요한 예 산 등 전반적인 상황을 두루 검토하고 있 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 (전국 0.70명),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2명 (전국 0.81명)으로 나타났다.

이슬비기자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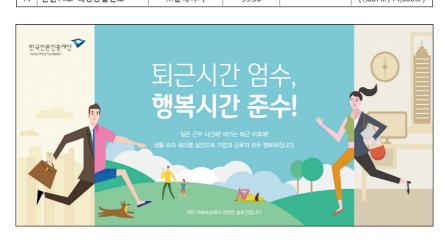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1.발전설비용량 : 1.4mW 2.사업개시예정일: 2023. 9

3.사업운영기간 : 2023. 09 ~ 2048. 08(예정)

4.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2023. 08. 31. ~ 2023. 09. 14.까지 전남 목포시 미항로 191-4 (2층) 일양산업으로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셔서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E-mail: ilyang00@daum.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11 11 12 11						
	5. 발전소명	6. 신청인	7. 용량(kW)	8. 발전소	8.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신원1호 태양광발전소	박선하	99.56		(1,211 m²/14,600 m²)		
2	신원2호 태양광발전소	최지영	99.56	전남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 635-1	(1,233m²/14,600m²)		
3	신원3호 태양광발전소	김가윤	99.56		(1,988m²/14,600m²)		
4	신원4호 태양광발전소	이준숙	99.56		(778m²/14,600m²)		
5	신원5호 태양광발전소	박영실	99.56		(778m²/14,600m²)		
6	신원6호 태양광발전소	박정애	99.56		(778m²/14,600m²)		
7	신원7호 태양광발전소	박정미	99.56		(778 m²/14,600 m²)		
8	신원8호 태양광발전소	최현주	99.56		(778 m²/14,600 m²)		
9	신원9호 태양광발전소	최고은	99.56		(846 m²/14,600 m²)		
10	신원10호 태양광발전소	손영희	99.56		(830 m²/14,600 m²)		
11	신원11호 태양광발전소	류기진	99.56		(814m²/14,600m²)		
12	신원12호 태양광발전소	남현두	99.56		(798 m²/14,600 m²)		
13	신원13호 태양광발전소	㈜일양엔지니어링	99.56		(1,103 m²/14,600 m²)		
14	신원14호 태양광발전소	㈜윤에너지	99.56		(1,887 m²/14,600 m²)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발전설비용량: 1.7mW

2.사업개시예정일: 2023. 9 3.사업운영기간: 2023. 09 ~ 2048. 08(예정)

4.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2023. 09. 04. ~ 2023. 09. 18.까지 전남 목포시 미항로 191-4 (2층) 일양산업으로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셔서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E-mail : ilyang00@daum.net

	5. 발전소명	6. 신청인	7. 용량(kW)	8. 발전소	8.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내정1호 태양광발전소	정성용	99.56		(1,116m²/21,731m²)	
2	내정2호 태양광발전소	이박균	99.56		(866m²/21,731m²)	
3	내정3호 태양광발전소	이박균	99.56		(798m²/21,731m²)	
4	내정4호 태양광발전소	전미숙	99.56	내정리	(786m²/21,731m²)	
5	내정5호 태양광발전소	이동조	99.56		(856m²/21,731m²)	
6	내정6호 태양광발전소	이윤주	99.56	8-33	(848 m²/21,731 m²)	
7	내정7호 태양광발전소	양송이	99.56	8-34 8-37	(878 m²/21,731 m²)	
8	내정8호 태양광발전소	김광호	99.56	8-40 172-1	(960 m²/21,731 m²)	
9	내정9호 태양광발전소	임기영	99.56	172-1	(1,178m²/21,731m²)	
10	내정10호 태양광발전소	한명남	99.56	172-3 172-8	(1,059 m²/21,731 m²)	
11	내정11호 태양광발전소	전옥자	99.56	(8필지)	(924m²/21,731m²)	
12	내정12호 태양광발전소	양누리	99.56	18개소	(803 m²/21,731 m²)	
13	내정13호 태양광발전소	박영심,마봉덕	99.56		(836m²/21,731m²)	
14	내정14호 태양광발전소	김영희	99.56		(861 m²/21,731 m²)	
15	내정15호 태양광발전소	강성원	99.56		(958m²/21,731m²)	
16	내정16호 태양광발전소	김옥희	99.56		(1,009 m²/21,731 m²)	
17	내정17호 태양광발전소	황혜숙	99.56		(1,017m²/21,731m²)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